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274 호 현대불교 A17
2019년 12월 25일(11월 29일) 수요일 / 불기 2563년

하늘이 무너져 다 죽게 된다 하더라도 빙긋이 웃을 정도가 돼야

(지난 호에 이어서)

우리 중세계, 하세계가 지금 동일하게 돌아가고, 지금 대천세계(大千世界)가 이렇게 같이 동일하게 돌아가다가, 우리 중세계라고 하는 것을 벗어 버리고 그냥 대천세계(大千世界)로 그냥 이렇게 돌아간다면, 우리 인간은 이 공기 주머니에서 아마 벗어나서 평화스러울 겁니다. 모두가 달라질 겁니다. 앞으로 달라져야죠. 새삼스럽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우리 한생각으로써, 한생각으로써 조그마한 일을 실천으로 옮겨 보세요. 조그마한 내 가정으로부터, 내 몸으로부터 실천을 해 보다 보면 우주를 삼키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러니 그러한 마음들이 전부 펼쳐질 때, 이 허공에 그 빛보다 더 빨리 펼쳐지면서 돌아갈 때에, 모든 사람에게 은연중에 배합이 돼서 불국토가 되는 거죠. 질문 있습니까? 예, 질문하세요.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저는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이렇게 화(化)해서 나툰다 하는 것을 저희들 물리학에서 본다면, 모든 물질들이 가장 기본적인 입자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 입자들이 어떤 궤도를 돌고 있는데, 그 궤도를 그냥 고정된 궤도를 돌면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궤도가 궤도를 옮겼다 고정되지 않고 바꾸면, 큰스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대로 광력이라든가 전력, 통신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어 놓은 업식이라든가 또는 그 무명이라든가 아까 번뇌 망상에 의해서 그런 궤도를 제대로 운행을 못 하도록 한다면, 또 뭐, 의학적으로 본다면 피가 몸속 곳곳에 운행을 잘해야 되는데 어떤 한 곳에 막히게 되면 거기가 아프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번뇌 망상 또는 업식이 있을 때에 돌아가는 운행을 못 하게 한다든가 해서 사람이 고통을 받고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진한다든가 참선한다든가, 또는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막히고 제대로 운행을 못 하는 것들을 한쪽으로 돌게 만드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것이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힘도 그 힘이 같은 방향으로 도는 힘이 모여져야 큰 힘이 나오지, 그 힘이 뒤죽박죽이 되어서 여러 군데로 같이 이렇게 방해를 하면 큰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상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수행이나 정진은 그렇게 한쪽 방향으로 큰 힘이 나오도록 돌리는 것이 정진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애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큰스님께서 자동 컴퓨터를 늘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어떤 분하고 통신을 할 때는 반드시 다이얼을 돌린다든가 또는 그 방송을 들을 때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같은 주파수를 맞춰서 우리가 그 방송을 듣게 되는데, 주인공 그 자리라 하면 자동으로 그것이 주파수가 조절이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저희들이 일부러…. 지금 현상적으로 본다면 KBS 방송을 들으려면 KBS 채널을 맞춰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갖 모든 것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스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주인공 그 자리는 저희들이 일부러 맞추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 관(觀)하면 전체 자동으로 맞춰지는지 궁금합니다.

큰스님 네. 자동이에요. 이 지금 로보트를 운행을 한다든가, 또는 방송을 듣는다든가 통신을 한다든가 어떠한 것을 작용하게끔 돌린다든가 이런다면 뭔가 그렇게 복잡해요. 그런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그냥 복잡한 것을 다 착착착착 그냥 그냥 일사천리로 해 주는 거거든요, 이 자동적인 컴퓨터가. 여러분의 머리이 컴퓨터가 말입니다. 하하하. 그래서 주관적인 데서 모든 배출시키는 거와 모든 통신하는 거 모든 일체…. 뭐, 이 지금 물질 컴퓨터에다가는 입력을 해서 그 입력하는 것만 나오죠? 그러나 여기는 자동적으로 전체, 일체 광대무변한 모두가 전부 소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생각에 벌써 그냥 버튼이 눌러지는 거죠. 눌러지는 걸 모르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걸 생각이나 하시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버튼을 눌렀다 다시 끄고, 버튼을 눌렀다 다시 끄고, 하하하, 아, 자꾸 이러니까 이거는 하려다 못 하고 하려다 못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게 명령으로 조달이 되질 않죠.

그래서 이게 모두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그 자기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진행하는 컴퓨터를 못 믿으면 누굴 믿느냐는 얘깁니다. 네? 세상에 자기 뿌리를 자기가 못 믿는다면 누굴 믿느냔 얘기예요. 누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허공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이름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형상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체제불의 마음' 그 노래를 지은 것도, 하도 답답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그냥 노래가 되어 버렸습니다마는, 그래서 부처님 형상도 내 형상과 둘이 아니요, 부처님 마음도 둘이 아니요, 부처님 법도 둘이 아니라. 이러니 그냥 생활이 그대로 법이요, 생활이 그냥 부처님 생활이지 어디 딴 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 원자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입자로 배출이 됐다가 또 그 입자가 배출이 돼 가지곤 또 수 바퀴를 돌아서 다시 화(化)해서 크게 또 우주를 형성시키고, 그 우주를 형성시키고 원자가 되고, 또 그냥 그렇게 배출이 되고 다시 들어와서 다시 또 끌어 들여서 또 크게 배출을 시켜서, 또 나누어서 배출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알고 보면요. 우주의 섭리나 인간의 두뇌의 섭리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생각했다면 악의 종자가 많이 배출이 되고, 선을 한다면 선의 종자가 그냥 무수히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 한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남을 이렇게 물질로 구제를 하는 거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새 발의 피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제를 한다 하고들 모두 날뛰는데, 한생각이 잘못됐으면 그 악이 퍼져 가지고 전부 웬만한 조그만 거는 다 그냥 뭉개져 버려요. 그냥 못 살게 뭉갠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어떠한 것을 도와야 하느냐면, 마음을 도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계를 발전시키고 마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정신계에 진출을 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뿐만 아니라 우주적으로도 손실이 되는 거죠. 이건 막대합니다, 정말. 그 반반이에요. 그런데 악이 더 많지 선이 더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악의 종자가 그냥 천차만별로 종자 종류가 그냥그냥 퍼지는 거죠.

질문자1(남) 큰스님께서는 늘 그 주인공 큰 자리를 불기둥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기둥은 그런 마음들이, 전체 에너지가 모여서 되는 자리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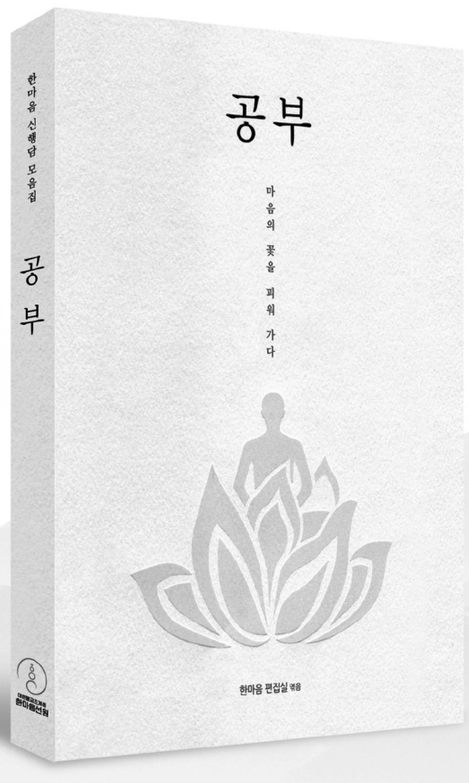
큰스님 전체, 그러니까 찰나찰나 이렇게 전체 모이죠. 이렇게 찰나에 전체 하나로 되기도 하고, 이건 보이지 않는 데 이치입니다마는 보이는 데도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전체 이렇게 한데 합쳐졌다 또 분리가 돼서 전부 헤어지고, 헤어졌다가도 전부 합쳐지고…. 왜, 이런 게 있죠. 전부 시장이나 장관이나 모두 이렇게 일을 보는데 귀정적인 문제는 대통령에게로 전달이 되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또 하달을 하듯이. 이거는 비유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데다 댈 게 아니죠. 이거는 자동적입니다. 무슨 이거를 조달을 하느라고 들고 다니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컴퓨터로 착착착착 나오듯이 그냥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컴퓨터를 탁 누르면 어느 동네, 또 컴퓨터를 탁 누르면 어떤 사람이 행하고 온 거, 과거에서부터 어디서부터 나왔고 어디서부터 무엇을 행했고, 그것이 다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도리를 모르는데, 내가 만약에 '아이구, 당신은 어디로부터 어떻게 나와서 얼마 안 있으면 죽겠고 살겠고' 이런 말을 하면 그건 도가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거를 이 마음으로써, 자기 한생각으로써 바꿀 수 있으니깐 그거를 자신이 실천을 해 봐라 이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지금 차원에 따라, 그릇에 따라서 움죽거릴 수 있는 거니까 조그만 거라도, 큰 거라도 서슴지 말고 무섭지 않게 생각하고 패기 있게, 물러서지 말고, 우리가 지금

☞ A18면으로 계속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한마음 블로그 『한그루의 숲』 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